

MVP 2014.SPRING(NO.39)

벤처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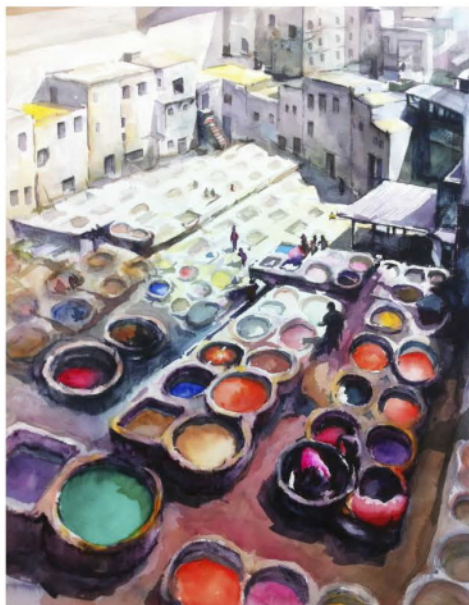
3M(벤사원, 캠퍼스원, 리사원) / 훈련, 동원팀 특집

3M 선교를 통한 교회개척운동

벤처선교사역개발원 |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 훈련, 동원팀

수잔의 모로코 생존기 | 모로코에서 예배자로 선다는 것

모로코 모리타니를 다녀와서 | 2주간의 함숙을 통해 느낀 것



그림_김민숙 간사

모로코 페스에는 천년 이상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 그대로 비둘기똥, 낙타 배설물, 식물에서 뽑아낸
 염료 등을 사용하는 천연 가죽염색공장이 있다.
 알록달록한 아름다움 안에, 하루종일 독한 물에 온몸을 담그고
 심한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며 최고급품의 가죽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장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빚으시며
 “최고급품의 사람”이 되길 바라시지 않을까?

CONTENTS

MVP 2014. SPRING(No.39)



COVER STORY

그림_장예슬(DreamSky)

“미전도종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밥상”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 02 그림묵상 | 김민숙
- 04 3M 선교를 통한 교회개척운동 | 한수아
- 05 벤처선교사역개발원 | 구영삼
- 07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 김홍빈
- 09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 김인애
- 11 훈련, 동원팀 | 장승리
- 14 수잔의 모로코 생존기 | 김수잔
- 18 모로코에서 예배자로 선다는 것 | 조윤희
- 19 모로코, 모리타니를 다녀와서 | 강유진
- 20 2주간의 합숙을 통해 느낀 것 | 이강석
- 22 MVP선교회 소식
- 23 좋은 책 소개

Organization Chart

이사장 신동우 | 실행이사 이종훈 이훈민 조명순 지경준 최웅섭 한정국 한천희 홍성원

후원이사 김만형 박삼열 성덕수 조상현 조흥식 정우길

본부장 한수아 | 총무 이길렘 장승리 |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구영삼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 부원장 김승관 |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인애 | 연구원 이영배

본부간사 김단비 김남훈 김민숙 김수정 권선주 문현심 조윤희 최현미 | 협력간사 김아영 손인중 윤여광

발행인 신동우 | 편집인 한수아 | 편집·디자인 김민숙 윤여광

발행처 MVP선교회 | 발행일 2014년 3월 20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7(망원동 378-11) 그린빌딩 5층

이메일 mvvpok01@gmail.com | 트위터 @mvvpkorea | 홈페이지 www.mvp.or.kr

전화 02)703-1215 | 팩스 02)703-1216

3M 선교를 통한 교회개척운동

MVP선교회는 MVP라는 그 이름 속에 선교회의 핵심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M(Mission, 선교)은 선교로서 미전도종족 전방개척선교를 추구한다. V(Venture, 벤처)는 전략으로서 3M전략을 실현한다. P(Partners, 협력)은 정신(Spirit)으로서 팀사역 혹은 협력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여러 선교회도 개척선교나 협력선교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 둘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3M전략은 선교계에서 아주 신선한 것이며 선교회의 벤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MVP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M전략은 선교현장에서 BM(비즈니스 선교사)와 RM(리서치 선교사), 그리고 CM(캠퍼스 및 교회개척 선교사(Church Planting Missionary)들의 팀사역을 통해 사역하는 미전도종족내에서 교회개척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선교회는 비즈니스 선교사(직업선교사 포함)를 적극적으로 파송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리서치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파송하는 단체는 아마도 MVP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다른 선교사들의 협력을 이끌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캠퍼스 선교사는 청년, 대학생 단기선교사들로서 현장에서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전도하면서 장기선교사들과 동역하고 있다.

이 3M전략을 밀반침하는 조직이 바로 본부 산하에 있는 3사원이다. 즉 비즈니스 선교운동을 주도하는 벤처선교사역개발원(벤사원), 리서치 선교를 이끄는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리사원), 그리고 젊은이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캠사원)이 그것이다. 3사원은 본부훈련 외에도 자체적인 특기 훈련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는 각 특기를 가진 선교사들을 네트워킹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3M이나 본부의 3사원이 함께 추구하는 목표가 미전도종족 교회개척운동이다.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각 종족별로 교회개척전담자를 선정하고 있다. 3M사역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도 그것이 팀워크를 통해 교회개척운동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개척전담자는 전문적으로 이 일의 진행을 체크하며 목표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는 열매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강력한 기도운동으로 밀반침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3M의 팀사역을 통해 각 지역에서 교회개척운동의 선교적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MVP

벤처선교사역개발원

(벤사원, Venture Mission Institute)

구영삼 선교사 / 벤사원 원장

벤사원은 2003년 12월 개원예배를 드리고 MVP선교회의 산하 기구로 출발했다. 그 해 여름 알마티에서 열렸던 제 1회 선교사대회에서 벤처선교를 연구하고 사역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연구기관을 세우자는 결의에 따라 조직하기로 했었지만 사람도, 조직도, 돈도 아무 것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지만 모험, 도전, 개척을 외쳤던 MVP선교회 정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출범할 수 있었다. 정말 거자씨처럼 작고 보잘 것도 없었지만 좋은 땅에 뿌려져 지난 10년을 자라왔다.

MVP선교회는 전방개척 선교를 위해 3M선교사-캠퍼스 및 교회개척 선교사(CM), 리서치 선교사(RM), 비즈니스 선교사(BM)를 파송하여 팀으로 사역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당시로서는 이런 개념이 매우 색다르고 특이한데다 비즈니스 선교를 시도하던 단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와 벤사원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곳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렇지만 벤사원은 원래 벤처선교의 다양한 사역을 개발해 내지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필요와 관리를 위해 차츰 리서치사역을 담당할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캠퍼스사역을 담당할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이 세워지면서 벤사원은 비즈니스 선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벤사원은 벤처선교 전략(비즈니스사역, NGO사역, 의료 및 상담사역, 시니어사역, 문화사역 등)을 구체화하여 창의적 접근지역과 미전도종족 대상 벤처선교를 위한 연구 및 실제적인 벤처사역을 창출, 지원 및 운영함으로써 선교의 토대(platform)를 구축하며, 종족단위의 교회개척운동(Church Planting Movement)에 동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많은 전문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각 영역을 선교로 동원하고자 한다.

21세기 선교의 키워드는 지리적, 종족적 땅끝을 추구하는 전방개척선교다. 그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발견한 새로운 땅끝이었고,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전도종족선교를 주장했던 랄프 윈터 박사는 말년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영역적인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영역적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다양한 선교가 시도되고 있지만 창의적 접근지역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새로운 돌파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개척 선교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아주 필요한 때이다.

벤사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추구하면서, 또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명령(Cultural Mandate)을 동시에 완수하려는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되시는 킹덤컴퍼니(Kingdom Company)를 세우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여 다양한 사업을 일으키며, 그 기반을 통해 선교지의 상황에 필요한 다양한 벤처선교 사역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게 영적인 영역에서 기쁜 소식일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총체적으로 보여 주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벤사원의 조직은 원장과 운영위원, 실무를 섬기는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역과 교제권을 위해 크레치니어 모임과 주니어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하며, 비즈니스 선교사역을 위하여 교제를 나누고 있다. 시니어 모임은 이미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본인의 비즈니스를 선교로 동원하기 원하는 분들과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시니어 선교사로 비즈니스 선교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니어 모임은 비즈니스 경험은 적지만 자신을 비즈니스 선교사로 드리고 싶은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비즈니스 선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 3월에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훈련을 시작하였다. 전방개혁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벤사원스쿨(V-School)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훈련대상은 벤처선교학교(SVM, School of Venture Mission) 수료자, 또는 비슷한 자격을 갖춘 분들 중 비즈니스 선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이다. 훈련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총 4단계 훈련을 실시하여 비즈니스 전문가이면서도 헌신된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 선교는 단시간 훈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 매우 장시간 개발하고 평생을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관리라는 측면과 세대간 지식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벤사원에서는 비즈니스 선교사 경력관리 및 시니어와 주니어를 연결하여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로 이양하는 멘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필요할 때는 도제식 훈련도 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훈련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한다.

비즈니스선교에 관심 있는 전문가, 시니어, 특히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현장에 나가 장기사역을 꿈꾸는 젊은 헌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선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MVP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캠퍼스, Campus & Church planting Mission Movement)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선교사와의 인터뷰내용 요약

1.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이하 캠퍼스원)은 무엇인가?

캠퍼스, 교회개척을 위한 사역개발원으로 MVP선교회 산하기관인 벤사원, 리사원과 함께 3M선교를 통해서 미전도종족 가운데 전방개척선교를 일으키는 부설기관이다.

2. 캠퍼스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010년도 청주에서 SVM훈련을 받으면서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전 본부장이었던 허드슨 선교사가 제안을 했다. 2011년에 비전작업을 하면서 캠퍼스원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고, 2012년 1월 열방콘서트 때 캠퍼스원 발족예배를 드렸다.

3. 캠퍼스원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청년, 대학생들에게 전방개척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MVP선교회 선교사님들과 매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8개 권역을 중심으로 주로 단기선교사들을 발굴하여 훈련하고, 상담을 통하여 현장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 예배와 증보기도와 외부강의를 통해서 좋은 선교자원들을 만나고 연결해 주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이집트의 요셉 학교를 통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무슬림권 장·단기선교사를 훈련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국외 교회개척과 교회개척선교사를 훈련하고 세우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4. 지금까지 선교지 방문을 하시면서 느꼈던 청년들의 상황과 청년사역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모든 사역지를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회어저기는 추수밭과 같다는 것이다. 전방개척지역의 30세 미만의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무슬림들은 산아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도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알라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구 문화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세속화된 세대들이다. 이들을 위해 캠퍼스 사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개척운동, NGO, 한국어 사역 등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CM(캠퍼스 및 교회개척선교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주사역이라면 그런 사례가 있는가?

2012년에 이란에 3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있다. 그들은 6개월간 SVM, VIT 훈련을 받고 이란에 있는 까즈빈

이라는 자그마한 마을로 가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우면서 현지선교사님들을 돕고 현지인들을 만나는 사역을 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할 것이다.

6. 국내에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가?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선교란 보냄받은 교회, 보내는 교회이다.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파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임을 위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곧 파송이 있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전방개척선교에 대한 인식이 약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을 타겟으로 한 선교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교회와 소그룹들이 세워지고 목양과 사역을 주로 목회자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닌 평신도들이 주관하고 목회자는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방향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목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방개척지역에서 동일한 일들을 계속 하길 바란다. 국내에서 선교적 교회를 경험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7. 캠퍼스 원장으로서, 선교적 교회의 리더로서, 캠퍼스의 비전선언문 “2015년까지 3M 단기선교사 100명을 10개의 전방개척권역에 파송하여 미전도종족 내에 캠퍼스 교회개척운동을 일으킨다”를 어떻게 이루어 갈 계획인가?

사실 고민이다. 2년 남았는데 쉽진 않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해서 최근에 결정한 것은 글로벌교회개척스쿨을 여는 것이다. 매년 10-20명을 6개월에 걸쳐 이론과 실습 훈련을 시킨다. 그들에게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연습을 하게 하고 한달 정도는 선교지에 함께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훈련을 올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이 일은 한국교회와 선교적교회, 단기선교사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개척은 단순히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오는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는데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 초대교회가 흠어지는 교회가 되고 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었다. 비전은 크지만 구조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젊은이들과 대학생을 통해 중국과 이란 땅에서처럼 다른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길 원한다. 2015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할지라도 이 비전을 가지고 매년 6개월 단위로 훈련생들을 모집하여 리더십을 전수해 나갈 때 교회개척운동은 분명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며 그 일에 캠퍼스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여질 것이다. MVP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리사원, Research Mission Institute)

김인에 선교사 / 리사원 원장

MVP선교회의 창립과 선교사 파송은 미전도종족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선교회는 처음부터 리서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훈련, 파송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족이나 사역하는 선교사가 거의 없는 지역을 섬기고 알리기 위해서는 연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MVP선교사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사역하기 원하거나 이미 사역하고 있는 종족이나 지역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선교사 자신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얻고 종족 복음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3M의 다른 두 바퀴인 비즈니스, 캠퍼스와 교회개척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리서치 선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MVP선교회가 전방개척과 미전도종족선교라는 험로를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과 지역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리서치 선교사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리서치사역개발원(이하 리사원)은 2012년 7월에 개원예배를 드리고 국내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사실 리사원이 있기 전부터 각 현장에는 현장 리서치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에 의해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역을 잘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사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이미 각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리서치 선교사들을 더 잘 돕고 케어하기 위함이다. 리서치 선교사라고 해서 리서치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장기간 사역하는 리서치 선교사들은 리서치를 다른 사역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하는 선교지 상황을 끊임없이 알리고 좀 더 깊은 차원의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리사원은 그들을 도전하고 돕는다. MVP선교회는 본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R&D기금을 따로 적립해왔다. 앞으로 선교사들이 리서치를 위한 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적절한 심사를 통해 R&D기금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할 것이다.

둘째, 선교사들간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MVP선교회는 남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선교해야 할 10개의 권역을 선정했다. 하나의 권역에는 한 나라가 속해있기도 하지만 여러 나라가 한 개의 권역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권역에 속해 있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권역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한 종족이 여러 나라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인구이동이 잦은 경우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간

협력 사역이 필요한데 리서치 선교사가 이를 도울 수 있다.

셋째, 선교지 리서치이다. 리사원은 최소 연1회 MVP의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장 선교사들과 함께 필요한 주제의 리서치를 할 것이다. 리사원에서는 2012년 '북인도 이슬람 상황과 무슬림 선교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리서치를 다녀왔다. 북인도 리서치는 현장에 있는 위나라 선교사와 함께 했다. 리서치 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북인도 무슬림선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렸다. 그 이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소수의 선교사만이 사역하는 그곳을 사역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2014년 4월에는 이란과 터키의 쿠르드족 리서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넷째, 선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필요한 리서치를 한다. 리사원에서는 2013년에 'MVP선교사 사역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했다. 2013년 리서치는 국내에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현장 선교사들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리서치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역 사례들을 수집하여 선교회와 선교사들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려고 한다.

리사원은 원장과 8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졌다. 연구원 중 2명은 국내에서, 6명은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연구원들은 꾸준히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다. 리사원에서는 선교지를 방문하여 리서치를 하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이 보내온 자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과 방면에서 홍보동원 자료를 만든다. 기도책자 발행, 동영상 제작, 회자를 통한 미전도종족과 관문도시 소개, 홈페이지를 통한 권역별 소개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

리사원에서는 지금까지 SVM과 VIT 등 선교회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학교에서 리서치 훈련을 실시해왔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전문적인 리서치훈련을 받고자 하는 선교회 내 선교사들과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1년 과정의 훈련학교를 열 계획이다. 훈련은 On the job training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 리서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 MVP

훈련, 동원팀

장승리 선교사 / 훈련, 동원 총무

13년 전, 주님께서 처음 선교 비전을 주실 때가 생각한다. 예수님이 날 자유롭게 하셨음을 경험하던 그 때, 주님을 위한 열정이 솟아오르던 그 때에 주님은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 선교는 나와는 무관한 몇몇 현신된 소수가 하는 특별한 사역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한 선교 훈련이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다'라는 첫 번째 강의의 제목부터 선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후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선교여행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찾아갔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었다.

MVP선교회의 선교훈련은 한 사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훈련이 되길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훈련이 되길 기도한다. 그 훈련을 기억하며 그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기도한다.

전방개척지역과 남은 과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 합당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과 기도로 지금의 훈련과정이 완성되어 진행하게 되었다.

MVP선교회의 훈련은 크게 SVM(School of Venture Mission)과 교별로 초청(단기선교여행), 그리고 VTT(Venture Team Training) 합숙훈련으로 진행된다. 이 훈련의 틀에서 우리는 각 교회가 선교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코스도 진행한다. 각 훈련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VM(School of Venture Mission)

SVM 훈련은 MVP선교회의 기본 선교훈련으로서 MVP선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의 첫 번째 단계이다. 훈련을 통해 실제적으로 선교사역을 맛보고 선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팀별활동과 액티비티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훈련이다. 매주 과제와 선교목상, 전도실습, 저난시간 복습이 진행된다. 이는 훈련기간 동안 선교에 노출되며 인식하여 강의시간만이 아닌 지속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 주 훈련부터 팀별로 구성되어 훈련기간 내내 다양한 팀별 활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총 10주간의 훈련이며 두 번의 1박 캠프가 진행된다. MVP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방개척선교의 전략을 워크샵과 함께 배우게 되고, 모두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선교사들의 강의를 듣게 된다. 더불어 현장에서 한국에 방문하는 전방개척지역의 선교사들의 살아있는 간증과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멘토가 되어 1대1로 상담하며 선교비전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진행된다.

2. 고넬로 초청 여행(단기선교 비전트립)

SVM훈련을 마치게 되면 고넬로 초청여행을 갈 수 있다. MVP선교회는 10개의 전방개척지역에서 활발히 사역하는 단체이다. 각 권역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10일에서 3주의 기간 동안 위탁되어 비전트립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 급급한 짧은 여행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나에게 있는 부르심을 점검하는 시간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 여행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페러다임을 갖게 될 훌륭한 훈련의 하나이다.

3. VTT(Venture Team Training) 합숙훈련

2주간 합숙하는 훈련으로 SVM과 고넬로 초청여행을 다녀온 훈련생은 VTT훈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VTT를 마치면 MVP선교회의 파송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VTT는 합숙을 통해 선교사역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곧 팀사역을 배운다. 무엇보다 MVP선교회의 정신과 철학을 공유하는 MVP선교회의 파송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다. 따라서 창의적이며 돌파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벤처선교사로 훈련받게 된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선교사로 훈련되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선교사로 훈련된다.

이 훈련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현장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된다. 매일 저녁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 앞에 나를 점검하는 집회의 시간, 전도실습과 팀빌딩, 팀활동, 전략실습 등을 경험하고 활동하는 시간, 현장에서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 질문하는 현장선교사들과의 만남의 시간, 비전과 사역에 대한 고민을 베테랑 선교사들과 나누고 방향을 잡고 멘토링 해주는 상담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4. 찾아가는 선교훈련(교회와 함께 하는 SVM-i/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학교)

MVP선교회는 지역교회와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 선교훈련을 받는 교회의 지체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교회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선교회가 진행하는 훈련이 따로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선교훈련을 진행한다면 교회가 함께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선교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섭외부터 선교훈련 진행의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MVP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훈련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며 선교훈련 진행을 돕고자 하는데 이 훈련의 목적이 있다.

SVM-i는 SVM의 인텐시브 코스로서 SVM을 수료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이다.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학교는 선교기초 훈련으로서 선교에 대해 잘 모르는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다. 모든 성도가 그 대상이며 이 훈련을 통해 교회 안에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현재 세계선교의 패러다임을 배우고, 교회가 선교현장을 방문하는 단기선교여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교회와 함께 상의하여 교회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선교훈련을 마치면, MVP선교회의 10개 권역을 소개하고 각 권역에 교회가 선교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선교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MVP선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준비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MVP

수잔의 모로코 생존기

김수잔 단기선교사 / 모로코

1. 메디나는 우리 동네(2012년 4월-5월)

메디나는 우리 동네다! 9세기에 세워진 마을로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blue gate'라 알려진 '뱀 부즐루드'를 통해 들어가면(이 문은 앞은 파란색, 뒤는 초록색으로 되어있는데 파란색은 FES를 상징하고 초록색은 이슬람을 상징한다) 많은 식당과 카페의 호객꾼들이 나를 반기며 시작되는 동네이다. 그들 중 일부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인사했는데도 나를 기억한다. "저기 중국인(모든 동양 사람들은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이라고 생각한다), 잘 지내니? 여기서 밥 먹고 가!"라고 소리치며 손짓한다. 이 사람들을 뒤로하고 시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종종 미안할 때가 있다.

이곳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은 크게 '달라 크비라'(큰 길), '달라 스기라'(작은 길)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골목이 있어서 큰 길과 작은 길을 벗어나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골목의 수가 약 9,000여개나 된다고 하니 메디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로이다. 어떤 선교사는 들어가서 길을 못 찾아 울면서 현지인에게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드나드는 운송수단은 단 세 가지이다. 손수레, 말, 나귀가 바로 그 것이다. 미로로 되어있고 길이 좁다보니 이 세 가지 운송수단 외의 것은 들어 올 수가 없다. 이 운송수단을 통해 상점에서 파는 물품들을 실어 나른다. 안 그래도 나귀는 불쌍해 보이는 얼굴을 가졌는데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는 더 불쌍해 보인다. 이 길은 가파르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옆으로

보이는 상점들을 구경하며 가다보면 즐겁게 다닐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미로와 같은 골목 사이사이에 현지인들이 사는 집이 위치해 있다. 이 메디나에서 내가 사는 곳은 A아저씨네 집이다. 이집에는 정이 많으시지만 엄격한 아랍어 선생님 이신 아저씨,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아줌마, 영어를 잘하는 센스 만점 딸, 또 수줍음은 많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두 아들이 함께 산다. 집은 3층으로 모로코 전통집이다. 내 방은 2층에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라서 다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렇게 모로코의 전통집은 높이 지어져서 전망이 좋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1층에는 모든 공간 중 가장 중요한 공간인 살롱(용접실)이 3개나 있다. 방문하는 손님, 친척들이 여기서 대접을 받고 자고 간다. 손님과 친척을 위한 공간을 따로 두는 것을 보면 모로코 사람들이 얼마나 손님 접대에 힘쓰는지 알 수 있다.

이곳은 평상시 자녀들이 먹고, 자고 쉬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처음에는 자기 방이 없이 살롱에서 자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살롱 프락시(모로코식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누워서 TV를 보는 나를 발견한다. 조금은 딱딱한 프락시

는 밥을 먹을 때는 식탁의자로, 잠을 잘 때는 침대로, TV를 볼 때는 소파로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로코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구 중 하나이다. 프락시에 누워 새벽1-2시까지 TV를 본 가족들은 아침 9시쯤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다.

보통 아침식사는 모로코의 주식인 흠스(둥그란 빵)에 쟀, 버터, 치즈를 곁들여 아짜이(민트와 녹차를 섞은 차)와 함께 먹는다. 산뜻하고 달달한 아짜이는 모로코인들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이다(기본적으로 하루 6잔 이상을 마심). 차 한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로코인들의 여유를 엿볼 수 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와 성장한 자녀들은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한다. 그 때부터 어머니는 다시 점심 준비를 시작한다. 흠스를 직접 오븐에 굽고 따진이라는 요리를 준비하는데 따진은 야채와 고기를 오랫동안 약한 불에 쪄낸 모로코 전통요리이다. 약한 불에 은근히 쪄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요리이다. 그렇게 준비된 식사를 하며 어머니의 음식 솜씨에 감탄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을 디드!(맛있어요!)”하고 감탄하면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신다.

모로코인의 점심은 하루 4끼의 식사 중 가장 풍성하고 다양하다. 이렇게 식사를 한 후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다시 출근을 한다. 이후 7시쯤 간단한 식사를 하고(빵과 차) 모든 가족이 퇴근하여 집으로 와서 10시쯤 다시 한번 저녁식사를 한다. 점심에 남은 따진이나 새로 만든 요리를 둘러앉아 먹는다. 이렇게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누워서 TV를 보기도 한다. 그렇게 메디나의 하루는 저문다.

2. 시내에서 살아가기

정들었던 메디나를 떠나 시내로 이사했다. 메디나에 살 때는 이웃들이 집에 그냥 들어와 누워 있어서 잠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시내에 살다보니 먼저 다가오는 이웃이 없다. 같은 도시인데도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도 옆집에 살며 교제하는 경비원 M아저씨 가정이 있어 감사하다. M아저씨는 못하는 것이 없는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다. 전기, 가스, 수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이기 때문이다. 자매들끼리 살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게 되는데 도와주는 아저씨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집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부끄러움은 많지만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들이다. 특별히 남자아이는 매일 나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간다. 공룡 흉내를 내기도 하고, 비쥬(프랑스식 인사로 모로코 인들도 이렇게 인사한다)를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나를 보고 숨기도 한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된다. 이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바로 슈퍼 아저씨이다. 나만 보면 “킴, 라마스?”(잘 지내니?) 하고 엄청 반가워한다. 매일 볼 때마다 장난을 친다. 재밌고 정 많은 아저씨가 있어서 시내에서 사는 것도 꽤 재미있다. 대부분의 슈퍼들이 그렇듯이 없는 물건이 없다. 천장까지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높이 있는 물건을 부탁할 때는 사다리를 끌고 와 물건을 내려주신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다. 시내에 살면서 함께 사는 모로코 현지인이 없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집 주위에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다. 또한 이곳에 와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서 집 이외의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3. 베르베르 마을 탐험기(2012년 8월)

이번 여름 방문한 단기 여행팀과 함께 모로코 남부에 위치한 아가디르라는 지역에 도착했다. 베르베르족의 마을을 방문하기 위한 일정이다. 베르베르족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 종족이다. 내가 사는 도시 페스에서 아가디르까지도 12시간이 넘는 긴 여정인데 베르베르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려면 다시 지프로 산 두 개를 넘는 험난한 여정을 해야한다. 지프를 타고 이동하는 길은 비포장도로라 많이 덥고 힘들지만 동행한 사람들이 있기에 즐겁다. 계속 된 이동 끝에 드디어 베르베르 마을에 도착했다. 들어서자마자 신기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반기는 아이들... 그것이 베르베르마을의 첫인상이다. "썰람 왈리쿰!"(안녕의 모로코 인사말)이라 인사해도 타마짓어를 사용하는 그들은 그 저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순수 그 자체이다. 염소들은 목동을 따라 언덕을 오르며, 아이들은 자연을 벗 삼아 뛰놀고, 여인들은 냇가에서 손 빨래를 하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외부와 차단된 마을이다보니 필요한 식료품이나 물품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트럭으로 조달한다. 그날은 마을 사람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다. 마을을 둘러보니 언덕에 덩성덩성 지어진 집들이 인상적이다. 돌과 흙으로 지어진 집들인데 외벽에 하얗게 칠한 것이 특징이다. 선교사님이 아시는 한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 를 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그 속에 사람을 향한 깊은 정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식사 이후에 '예수' 영화를 보며 가족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 산골마을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영화를 본 후 밖으로 나간 우리는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날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뒤에 있는 산에 올랐다. 산으로 가는 길에 동네에 사는 아가씨들을 만났다. 가이드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순박한 사람들의 웃음이 아름답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눈 뒤 사진을 함께 찍었다. 사진을 보내주려고 이메일을 물으니 이메일이 없었다. 만나는 사람에게 바로 페이스북 계정을 물어보는 도시의 모로코 청년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마을의 청년들... 이 시대에 문명과 떨어져 자신의 문화와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가치있게 느껴진다. 등산을 끝내고 내려온 뒤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작별인사를 나눴다. 이 산골 마을에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4. 나의 벗들, 보고싶은 사람들...

한국어 수업 시작 때부터 함께한 친구 U... 미국 유학 동안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된 친구이다. 무엇보다 이 친구는 한국 음식을 한국인보다 좋아한다. 미국에서 친구가 보내준 재료로 집에서 혼자 잡채와 김밥을 만들어 먹을 정도니 말이다. 한번은 한국어학원 친구들이 모여서 '한국의 밤' 행사를 진행했는데 양배추 김치와 비빔밥을 때문 기색 한 번 없이 다 먹어서 모두가 놀랐다. 다 먹고 "맛있다"라고 말하는데 모두의 웃음

이 터졌다. 늘 “수잔 보고 싶어요”라고 한국어로 나에게 말해주는 친구... 또 “대박”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 친구... 이 친구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더 사랑하고 싶다. 조만간 한국으로 여행 오고 싶어하는데 머지않아 한국에서 재회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늘 자기가 예쁘다며 스스로 칭찬하면서도 다시 남자친구 없다고 슬퍼하는 친구... 수잔도 남자친구가 없다며 대신 슬퍼해주는 귀여운 친구다. 항상 내 변화에 관해서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동안이라며 내 모습을 너무 사랑해주는 내 친구... 껌딱하기를 잘하는 나에게 “수잔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다”고 말해주는 나를 잘 아는 친구... 가끔 용돈이 떨어질 때 우리 한국어 반에서 배운 한국말로 어머니께 “엄마, 돈 없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 귀엽게 느껴지는 내 친구... 한국에 오기 전 헤어지는 길에 손으로 하트를 그려주던 그 친구가 바로 내 친구 H이다. 마냥 밝아보였지만 힘들었던 일들을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정말 내 친구이다. 앞으로 내가 안고 가야할 영혼이자 친구이다. H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 헤어짐이 정말 너무나 아쉽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낯선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와 다른 환경, 문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살고 계신다. MVP

모로코에서 예배자로 선다는 것

조윤희 단기선교사 / 모로코

1년간의 단기 선교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훈련하게 하신 것은 예배와 기도였다.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며 언제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배웠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하다.

모로코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홈스테이를 했다. 현지인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별히 그들의 종교생활을 보며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5면씩 울리는 이슬람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소리에 맞춰 기도하는 현지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두 번의 모로코 단기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 1년간 단기선교를 가기로 결정했다. 다시 모로코 땅을 밟으면서 열정을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리라 생각했다. 최대한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서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것, 삶을 통해 현지인들을 섬기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현지인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곤 했다. 하나님께서는 낯선 땅에서도 혼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과 자기 의를 버리고 먼저 준비되고 배우길 원하셨다. 이슬람은 모로코인들의 종교만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것을 라마단, 에이드크비르(모로코의 큰 명절로 양을 잡는 날)와 같은 절기 때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진로, 실업,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절망하고 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이들이 꼭 알기를 소망했다.

단기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깊이 만나주셨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열방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받은 그 사랑 간직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살아야겠다. MVP

모로코, 모리타니를 다녀와서

강유진

모로코에 도착했을 때 내가 생각한 아프리카와는 많이 달랐다. 기차역을 나서는데 여기가 아프리카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고 아름다웠다. 모로코에서는 바다도 보고 시장도 구경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단기 선교사님이 하시는 한국어학원에 가서 현지인들과 윗놀이도 하고 또 현지인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한 시간이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먹고 또 먹었는데 모로코 사람들은 10시쯤에 저녁을 먹고 그 전까지 케이크와 빵 같은 애피타이저만 계속 먹는다. 그리고 모로코 전통음식 꾸스꾸스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5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모리타니로 갔다.

처음에는 진짜로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앞에서 낙타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직접 사막 언덕도 올라가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저절로 목상을 하게 되었다. 모리타니에 도착해서 그 땅을 직접 보고 땅 밟기를 하면서 척박하고 끝없는 모래바람과 구절을 하러 다니는 어린 아이들과 수많은 무슬림들을 보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을 느꼈다. 모로코와 모리타니에서 많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함께 하면서 선교가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직접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귀한 시간들이었다. MVP

2주간의 합숙을 통해 느낀 것

이강석

VIT 훈련을 받으면서 몇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훈련을 받은 분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훈련생 중에는 대학생 청년부터 제 아버지 세대의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리게만 보이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에 대해 반응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모습,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에 도전받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제일 연장자였던 분의 간증을 통해 들게된 그분의 인생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도전이 되었던 것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옆방에서 들려온 그분의 기도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8명의 훈련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는 선교사님과 간사님의 섬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빼돌려지게 생각하면 8명밖에 안 되는데, 훈련생들을 위해 자기 시간을 내어 강의와 하고, 선교지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감사의 일들을 솔직하게 나눠주시는 선교사님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지내며 섬겨주시는 간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도전이 된 시간들은 바로 전도와 중보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타임 테이블에 하루 종일 전도시간이 잡혀있는 것을 보며 훈련입소 전 '제일 힘든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새벽예배를 준비하면서 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목상했습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복음은 결코 값싸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서 갈급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없었지만 같이 간 지체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며 기도응답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 중보기도 시간에 실제적인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출석하는 교회 청년부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조직해서 예배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시작과 동시에 VIT 훈련을 받으며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좋은 선교사님과 동기훈련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MVP

선교사 소식

출입국

- 12월 23일 김수잔 선교사 입국
- 1월 7일 장선우 선교사 입국
- 1월 17일 모세 선교사 입국
- 2월 6일 박동행 선교사, 딸 정민 입국
- 2월 6일 고넬료 초청팀 출국
- 2월 7일 한수아, 최웅수 선교사 출국
- 2월 7일 제이콥리, 샤론박 선교사 가정 입국
- 2월 8일 모세 선교사 출국
- 2월 21일 정찬송 선교사 출국
- 2월 21일 한수아, 최웅수 선교사 입국
- 2월 26일 염미족, 정부흥 선교사 가정 출국
- 2월 27일 김루디아 선교사, 아들 은석 입국
- 3월 11일 박수보 선교사 입국
- 3월 13일 류근욱 선교사 입국
- 3월 20일 위나라, 구하라 선교사 가정 입국
- 3월 30일 리사원팀 출국

허입/파송

- 12월 8일 염미족, 정부흥 선교사 가정 파송(2차)

2013년 10월 ~ 2014년 2월

본부 후원자

강길용(5) 강상모(5) 공윤주(5) 광정인(3) 구명옥(5) 김경동(5)
 김미석(3) 김상우(4) 김선중(4) 김성규(5) 김 솔(5) 김영이(3)
 김유리(4) 김종근(5) 김진철(5) 김철우(5) 김충만(2) 김현근(5)
 김혜란(5) 김홍빈(4) 노병인(5) 박건부(5) 박미애(5) 박상윤(5)
 박용신(3) 방민경(2) 서연주(1) 서정희(5) 심현석(5) 연인흠(5)
 오설란(5) 오세욱(5) 오희순(3) 우충기(3) 유광훈(5) 유상범(5)
 유영수(4) 윤병순(5) 윤여광(1) 이동욱a(4) 이동욱b(5) 이보람(5)
 이상연(5) 이새암(5) 이세준(5) 이승규(5) 이승원(4) 이영훈(3)
 이윤희(4) 이유리(1) 이은희(4) 이윤복(1) 이재선(4) 이재준(5)
 이종훈(4) 이주용(5) 이지혜(5) 이종식(5) 이판호(5) 이현경(5)
 이혜수(5) 이희정(5) 임광한(5) 임유진(1) 임하경(3) 전해술(3)
 정가영(4) 정다은(5) 정소라(4) 정소임(2) 정수아(5) 정용환(4)
 정우길(4) 정현실(3) 조병순(4) 조영남(1) 조윤희(2) 조정주(2)
 조희선(5) 지경준(5) 지명준(5) 진 현(4) 최웅섭(5) 최인선(1)
 한유경(5) 한정국(5) 허종현(5) 홍성원(4) 황두환(5) 황윤이(5)

김지혜/김지은(5) 손인종/김민영(5) 정성진/은연옥(5)
 하명수/홍유미(4) 한천희/최은종(5)

궈에네스산전(5) 고현교회(4) 공종훈(하영통신)(4)
 그소망교회(4) 꿈이있는교회(4) 남서울은혜교회(4)
 물넨동산수림교회(4) 분당천구들교회(3) 산들중앙교회(4)
 성실교회(3) 다락방(2) 엠피코퍼레이션(주)(4)
 예수비전교회(1) 은진교회(3) 인천송월교회(3) 임마누엘(3)
 조경순(ks투어)(4) 질그릇터(5)

후원방법

1. 본부 계좌 국민 012501-04-182812 MVP선교회
 2. 전화신청 070-8260-5518
-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바뀔 경우, 저희 본부로 연락주시면
 변경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후원 늘 감사드립니다.

MVP선교회의 새소식입니다

1. 열방콘서트

MVP의 열방을 향한 뜨거운 예배 '열방콘서트'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립니다.

11월 21일에는 내수동 교회에서 'MK 후원 음악회'를 하였습니다.

12월 19일에는 '열방의 밤'으로 말씀(한수아 본부장), 간증(박정민)이 있었고, SVM 기수별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23일에는 '페르시아2지역(타직,아프간) 선교의 밤'으로 말씀(T국 이바울 선교사), 사역보고(이갈렘 총무)가 있었고, 고별료 초청(모로코-모리타니)팀을 파송했습니다.

2월 20일에는 '북아프리카 선교보고의 밤'으로 말씀(이갈렘 총무), 모로코 단기선교보고와 간증(김수잔 단기 선교사)과 VTT 8기 간증(전해솔)이 있었습니다.

2. SVM 28기 개강

2014년 상반기 SVM 훈련이 3월 14일에 개강하여 5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28기 SVM 훈련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VTT 8기 수료

2014년 1월 6일~1월 18일까지(2주간) 장·단기선교사 합숙훈련인 VTT가 은혜 속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훈련생들의 전략발표 등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4. 디브리핑 위원회

1월 11일 이바울, 고예은 선교사 가정과 3월 8일 장승리, 유열매 선교사 가정이 디브리핑에 참여하셨습니다.

5. 본부 사역자 수양회

1월 21일~23일 2박 3일간 본부 사역자 수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6. 본부성당 터키와 이집트 방문

현장 파악 및 현장 선교사 격려를 위해 터키와 이집트를 방문하셨습니다(2월 7일~21일).

7. 고별료 초청 여행

고별료 초청으로 2014년 2월 6일~21일 권선주, 김성일, 강유진(3명)이 모로코-모리타니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인 가정방문 및 선교사님들과의 교제, 리서치 사역을 하였습니다.

8.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리서치 선교여행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에서 2014년 3월 30일~4월 16일 터키와 이란 쿠르드족 리서치를 다녀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9. 금식기도회

11월 7일, 12월 5일, 1월 3일, 2월 6일, 3월 6일에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금식기도는 4월 3일, 5월 1일, 6월 5일, 7월 3일, 8월 7일입니다. 매주 첫 번째 목요일에 금식기도를 합니다. 금식기도는 수양관 등 외부로 나가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여하실 분들은 본부에 문의 바랍니다(02-703-1215).

10. 중보기도원 모집

MVP선교회의 10개 권역의 선교지 및 선교사님들을 위한 정기중보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오전 MVP본부에서 진행되며 중보기도회를 이끌어갈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문의바랍니다(02-703-1215).

11. 홈페이지 새단장

MVP선교회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전방개척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mvp.or.kr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

롤런드 앨런 지음, 홍병룡 옮김 / IVP

롤런드 앨런은 20세기와 21세기 사이에 활동했던 선교사이다. 그의 책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는 이미 출간된 지 100여년의 기간이 흐른 고전이지만, 바울의 선교원리를 살펴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대를 아우르는 그의 해안은 실제 중국에서 8년간 선교사역을 한 경험과 사도바울에 관한 깊은 묵상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총 다섯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말하며 사도 바울이 처한 선교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뒤이어 제 2, 3부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였고 회심자들을 훈련시켰는가에 대해 말한다. 4부에서는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에서의 관계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 5부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선교방법에 따른 관점과 결론을 제시한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출간당시 3부의 내용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회심자들에 대한 선교사들의 보호, 간섭, 지배주의적 선교성향을 비판한 내용은 오히려 후세에 와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작가의 관찰자적 시점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의문들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한다. 가령, 전략적인 거점중심 사역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아닌 고립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선교란 결국 성령의 역사라는 점을 역설하기도 한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는 바뀌어도, 그 기본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책은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고민해 볼만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책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봄, 본서를 통해 '우리의 선교와 바울의 선교는 흑 대립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책을 읽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MVP